

# 소비자 물먹이는 '렌탈 정수기'

중도해지시 과다 위약금·구두계약 불이행 등을 1분기 피해 1986건... 전년보다 18% 늘어 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소비자 평가

■ 평가요소

구분	내용
사전 정보 제공	정수기 특성·계약 및 해약 등에 대한 사전 공지·표시사항 등
물 품질	물의 맛, 냄새, 탁도 등
안전성	감전 및 누전, 제품 외관의 이상 유무 등
관리자 성실도	관리자 전문성, 약속시간 준수, 친절도 등
가격	기기 및 관리 가격의 적정성
A/S	기계 고장·이물질 혼입·누수 발생 시 대응, 기타 A/S 이용경험 등

# A씨는 지난해 5월 B사업자와 60개월(의무사용기간 : 36개월) 얼음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해 매월 4만29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하던 중 얼음 제조시간이 길고 냉수 기능에 문제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 2012년 2월 C사업자와 3년간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D씨는 이후 사업자가 렌탈 정수기 의무사항인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버렸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정수기 판매도 늘어났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지난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탈 정수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2012년 6229건에서 지난해에는 754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접수한 피해는 1986건으로 작년 동기(1686건)보다 17.8% 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 223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불만 내용은 ▲중도해지 처리지연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 ▲구두계약 불이행 ▲명목도용 계약 등 계약 관련 피해(30.9%)가 가장 많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4년도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톡톡' 두 번째 평가 품목으로 정수기를 선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평가를 시작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9개 업체에서 판매중인 정수기 16종이며, 평가 방법은 소비자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소비자톡톡' 코너에 접속해 사용 경험이 있는 정수기를 선택한 후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제품의 장·단점, 추천 여부 등 이용 후기를 기재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생한 평가와 함께 피해 사례와 전문가의 구매 가이드도 제공해 정수기 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정수기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3만원/20명, 1만원권/30명)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리콜 명령 우편 통보 안한 '현대차'

시정률 엑센트 25%·제네시스 26% 불과... 국토부 "처벌규정 마련 검토"

현대자동차가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엑센트 950대에 정면충

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결과 지난 3월 현재 기준

으로 엑센트의 경우 리콜 차량수가 235대에 그쳐 전체의 24.7%에 불과했으며, 제네시스는 2391대(26.3%)만이 리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제작사에서 우편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 시중은행들, 대출 갚아도 근저당 유지

지나해 8만건 고객 동의 없이 계속 설정... 금감원 "말소 확인해야"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

하고 있는 경우는 9만2137건이었다.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563건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0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743건(32.7%)이었다. 소비자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

면 은행에서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대출 완납 후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 담보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식약처, 9개 살충제 자동분사기 장착 금지

살충성분 체내 축적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살충제 가운데 레스메트린, 사이피메트린, 프탈트린, 피메트린인 함유된 257개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9개 제품에 대해 자동분사기 장착을 금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프랄트린과 피메트린인 국보사이언스의 '크린킬라 오도홀'을 비롯한 9개 제품은 정해진 시간마다 살충 성분을 분사하는 자동

분사기에 장착해 사용하면 살충 성분이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어 이 기기에 장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피메트린이 주성분인 그린월드팜의 '크린렛 유제'를 비롯한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하는 경우 애

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가 보고돼 용법·용량에 '애완동물에 사용'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의 제품을 포함해 실내에서 사용하는 234개 제품은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후 출입하고 살충성분이 피부나 눈에 접

촉하지 않도록 하며 접촉했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하는 문구를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레스메트린 등 4개 성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살충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엔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맥터, 상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견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에스프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업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신 협**  
본 점 :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